

## 육정수의 초기 단편서사 연구

임기현\*

- 
- I. 머리말
  - II. 「血의 影」 - 실력양성론자의 염원
  - III. 「螺贏의 子」 - 교육주권의 강조
  - IV. 「水輪의 聲」 - 근면성의 강조
  - V. 맺음말
- 

### I. 머리말

근대계몽기는 봉건주의를 해체하고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일제를 비롯한 서구의 열강들로부터 국권침탈이 진행되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보존해야 한다는 지난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서사문학이 출현했으니, 이를 우리는 근대계몽기 소설, 혹은 신소설로 불러왔다. 1900년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표한 이 소설 중에서 우리는 육정수(1885~1949)가 남긴 『송뢰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소설의 남상이 되는 작품들이 발표된 것은 1907년에서 한일 강제 병합 직전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는 러일전쟁(1904~1905) 승리 후 대

---

\*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한제국을 보호국화(1905)하고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일제는 시정 개선지도를 명분으로 대한제국의 국정에 간섭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병합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한 일종의 수순이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인직과 이해조와 같은 작가의 신소설 작품들에서는 개화주의에 매몰된 나머지 친일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육정수의 『송퇴금』은 일제가 내세운 동아시아 연대론, 일제 식의 계몽논리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 소설은 두개의 축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옥이네 가족을 등장시켜 한국 서사문학 최초로 해외 이민(하와이 이민)의 과정을 다루는 한편, 근암이라는 젊은 실업가를 내세워 일제의 자본에 맞서 토착·민족자본의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송퇴금』에서 일제의 자본은 조선의 문명개발을 돕는커녕 민족자본가의 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힘으로 설정되고 있다.

『송퇴금』은 비록 미완으로 그친 작품임에도 이러한 매력 때문에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최원식 교수가 1984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작품을 근대 계몽기의 대표적 신소설의 하나로 규정한 이래<sup>1)</sup> 양진오 교수는 일제의 문명개화 논리를 맹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제국의 기획에 공모하며 전개된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sup>2)</sup> 해외 이민사를 다룬 연구에서도 『송퇴금』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강언복(1997)과 김형규(2011) 등은 모두 한국 최초의 해외이민 소설로서의 『송퇴금』에 주목하고 있다.<sup>3)</sup>

『송퇴금』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논의가 이 한

---

1) 최원식, 1984, 「신소설과 노동이민」, 『인하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제10집.  
2) 양진오, 2005, 「육정수의 『송퇴금』 연구」, 『어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54쪽.  
3) 강언복, 1997, 「미주유이민문학연구 1」, 『목원어문학』 15집, 목원대학교, 22쪽, 48쪽 ; 김형규, 2011,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편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우선 그 첫걸음으로 육정수가 작품 활동 기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한 세 편의 콩트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는 육정수의 초기 콩트 세 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이 작품들이 갖는 계몽기 소설로서의 위상과 문학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계몽기 소설사를 좀 더 풍부하게 기술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콩트들은 육정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쓴 작품으로 이후 발표된 작품의 그 원형으로서도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육정수가 이후에 발표한 작품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육정수는 1908년 2월 『장학보』에 응모하여 2등작으로 입선한 「혈의 영」을 시작으로 이해 4월호에 「과라의 자」, 5월호에 「수륜의 성」 등 모두 세 편을 발표했다.<sup>4)</sup> 이 시기는 1905년 일제의 보호국화 시기 이후, 1910년 병탄을 2년여 앞둔 1908년 한 해에 발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 II. 「혈의 영」 - 실력양성론자의 염원

육정수가 발표한 최초 작품인 「혈의 영」은 독립협회가 주도한 만민 공동회의의 시위가 연상되는 작품으로, 독립, 자유, 교육, 실업을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꿈’을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실 - 꿈 - 현실의 순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액자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빛남산(남산) 아래 도화동 류주사네 집에 사는 경운이라는 인물이

4) 『장학보』에 실린 세 편의 작품, 그 정확한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 목	소 재
「血의 影」	1908년 2월호(제1권 2호) pp.30~32.
「螺贏의 자」	1908년 4월호(제1권 4호) pp.25~27.
「水輪의 聲」	1908년 5월호(제1권 5호) pp.19~21.

밤늦게까지 잠지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만세 시위현장을 목도하고 자신도 함께 만세를 외친다. 잠을 깨보니 새벽 두 시가 되었으며, 책상 위에는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고 보던 잡지 『장학월보』가 놓여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기서 중심 사건은 경운이라는 인물이 꿈에서 자신도 직접 참여하여 겪은 군중들의 만세시위라고 할 수 있다.

기차에서 내린 군중들은 모두 태극기를 들고 송례문(남대문)을 향하면서 ‘제국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벌인다. 경운이라는 인물도 흥분된 마음으로 이 시위에 동참한다. 현장에는 ‘독립만세 자유만세 교육만세 실업만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며, 큰 깃대에는 “독립은 영웅열사의 賞, 자유는 호걸남의 상, 교육은 유지청년의 상, 실업은 진직국민의 상”의 네 가지 구호를 크게 써 놓았다고 했다.

떠어쓰거나 문단개념 없이 줄글의 형태로 기술되고 있는 일반적인 계몽기 서사 양식의 글쓰기와 달리 작가는 이 네 가지 구호를 각각 나열하면서 행갈이를 하고 있다. 입체적인 제시 방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쓴 모자에도 “독립, 자유, 교육, 실업”이라고 써 놓았을 만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하다. 또한 그들은 금강산 만폭동 폭포소리와 같이 천지를 뒤집을 듯한 소리로 만세를 외친다.

(남승객) 소년한반도 일천만 동포 곤한 잠 서세동점에 깨  
였도다 독립 자유만세

(여승객) 소년한반도 일천만 자매 깊은 꿈 평등주의(平等主義)  
에 놀랐구나 교육실업만세

(경 운) 환영이야 환영이야 제국만세

(남녀승객) 만세만세 만세 만세

작가는 시위에 참가한 군중들의 발화를 적절히 배분하면서 만세의 역동적 현상을 그려내고 있다. 꿈속에서지만 경운 역시 이 시위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운은 풍전등화에 놓인 국가의 위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

면서 “그러면 그렇지 사천년 고국과 삼천리강토가 설마 있지 않을까” 하는 안심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가가 서세동점의 위기상황에서 독립과 자유,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 실업의 기치야말로 최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독립과 자유, 교육과 실업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 육정수가 투쟁노선보다는 계몽주의 및 실력양성론의 노선을 따르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1904~5년의 러일전쟁을 겪고,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 체결(1905. 11.) 이후 대한제국은 보호국화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감은 상대적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도 강하게 불러 일으켰다. 이는 을사늑약 조약에 “한국의 富強之實을 認할시까지 이 조약을 약정한다”는 기만적인 문구가 들어간 때문이기도 했다.<sup>5)</sup>

지식인들은 이제라도 교육과 실업 분야에서 분발한다면 부강한 앞날과 국권의 회복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의 국권회복운동을 무장투쟁노선과 실력양성운동노선으로 나누었을 때, 육정수는 그 후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실력양성론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던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은 우승열패는 천연의 공레라든가 생존경쟁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우리 민족 역시 다른 민족을 이기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연 도태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우승열패의 생존경쟁의 철칙을 받아들일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실력을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육정수의 소설에서 “약육강식하고 우승열패하는 이십세기”(『수룡의 성』, 20쪽), “우승열패는 뗏뗏하리 치라”(『과라의 자』, 26쪽), “우승열패의 세는 둘이 같이 서지 못하여”(『송뢰금』, 58쪽) 등과 같은 구절이 자주 운위되는 것도 육정수가 이러한 실력양성론의 바탕 위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육정수는 배재학당 시절, 그곳에 강의를 나오고 있던 독립협회 서재

5)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44쪽.

필이 주도했던 협성회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협성회는 역시 서재필이 주도했던 독립협회의 전위조직으로도 알려져 있다. 독립협회는 주지하다시피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투쟁보다는 계몽주의, 실력 양성론의 입장에 서 있었다. 주인공 경운이 외치는 ‘대한제국만세’의 구호에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작품 『송뢰금』에서도 주인공이자 청년 실업가 근암은 무능한 군수에게 충고하면서 “성상의 인자하신 천은은 팔역 인민의 질고를 근심하사 병침이 깊으시거늘”(『송뢰금』, 46쪽)과 같이 말하면서 군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근암은 자본주의적 가치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자본가이면서도 군주가 통치하는 입헌군주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정수는 이 소설이 발표될 1908년 당시 독립협회의 정신을 잇는 대한협회 교육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협회의 핵심강령은 교육보급과 산업개발이었다.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이야말로 민족의 독립과 부강한 국가건설을 위한 요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육정수가 1926년부터 1935년 해체 시까지 10여 년간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흥업구락부 역시 강점기 하에서의 실력양성운동의 재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평생을 지배한 노선은 실력양성계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육정수는 소설을 쓰는 한편으로 교육가로서 또 실업가로서의 삶을 일관되게 살았다. 또한 『송뢰금』이나 「참맛」(1915)에서도 민족 실업가를 등장시켜 끊임없이 일제 자본에 맞설 수 있는 경제와 실업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혈의 영」은 이후 육정수 삶과 문학의 단초를 보여주는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소설은 경운이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확인하게 된 ‘자유 독립 교육 실업’의 가치를 통해 실력양성론자로서의 육정수의 신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고전소설과 달리 꿈을 활용한 장치, 즉 入夢과 覺夢의 과

정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책을 보던 방에서 깜빡 잠이 든 경운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꿈속 만세시위 현장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위 현장에서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게 했다는 점에서 몽유록계 소설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정수의 이 작품 앞에 실려 있는 1등작, 심상직의 『晩悟』에서 ‘만오생’이라는 인물이 평소에 욕심을 주의하라는 스승의 말을 게을리 듣다가 꿈속에서 물고기가 되어 향기 나는 미끼를 탐하다가 끝내 어부에게 낚여 몸이 두 동강이 나는 순간 깨어나 욕심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몽자류’ 계열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육정수는 꿈은 꿈이되 현실의 연장선에 있는 생동하고 역동적인 꿈 속 장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몽의 과정과 소설의 결말이 채치 있게 연결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깃대를 높이 드니 국문으로 세 글자를 금으로 새겼는데 ‘대한훈’ 경운이가 보다가 어떻게 좋았던지 ‘대한 훈 만세’를 목이 지어지도록 부르다가 한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니 환진(幻眞)은 한단(邯鄲)으로 돌아가고 상하에 피는 매화는 봄빛을 재촉노라 송이송이 피었는데 등하에 있는 잡지에 장학월보에 글자는 안전(眼前)에 또렷하고 두 나레 툭툭치며 우는 닭소리는 이날 밤 상오 두시 종소리와 섞기여 꼬끼오 땡땡땡 꼬끼오 땡땡 꼭꼭

시위 현장에 뛰어든 경운이가 깃대에 금 글씨로 쓰인 ‘대한훈만세’를 보고 너무나 기뻐던 나머지 자신도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가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 결국 꿈이었다는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꿈을 깨고 등 아래 놓여 있던 잡지가 학생들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던 ‘獎學月報’였다는 것이다.

예의 교육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장학월보』에 투고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심분 활용한 것이다. 연이어 봄을 재촉하는 매화꽃이 피고,

새벽 두시 닭 울음소리를 결말에 배치함으로써 소설 초반부에 드리우고 있던 염려와 불안의 분위기를 희망의 그것으로 반전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남현 교수가 그의 소설사에서 이 작품을 해설하면서 “남자 승객들은 서세동점을 찬미하면서 독립만세와 자유 만세를 외쳤다”고 한 부분이나 뒤에 가서 이 작품이 “서세동점을 적극 지지한”<sup>6)</sup> 것으로 정리한 대목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전반적인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소년한반도 일천만 동포 곤한 잠 서세동점에 깨였도다 독립 자유만세” 이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성급하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서세동점 즉, 서구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오랜 미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립과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Ⅲ. 「蝶羸의 子」 - 교육주권의 강조

『장학보』 4월호에 실린 이 작품은 계몽기 작품 중에 교육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각별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소설은 제목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과라(蝶羸, 나나니벌)와 명령(螟蛉, 뽕나무애벌레)에 얽힌 고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목에서부터 생소한 느낌을 갖게 되어 있다. 이 고사는 실제로 이 작품의 두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과 관련을 가지는 동시에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

나나니벌은 뽕나무애벌레와 같은 나방의 애벌레를 마취시킨 뒤 자기 굴로 데려와 그 애벌레 속에 자신의 알을 낳는다. 나나니벌은 자신이 낳은 알이 애벌레로 부화하면 잡아온 애벌레를 숙주로 삼아 자라도록 한다. 나나니벌은 나방의 애벌레를 죽이지 않고 마취만 시켜 놓음으로써 오랫동안 나나니벌 자신의 새끼에게 싱싱한 먹잇감이 되도록

6) 조남현, 2012,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139~144쪽.

록 한다. 파브르도 그 곤충기에 이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을 남겨 놓았을 정도로 나나니벌은 특이한 습성을 가진 곤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양에서도 과라와 명령의 관계에 주목하여 고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외견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과라에게 물려 와서 부화한 과라 새끼의 먹잇감이 되면서 정작 명령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동양에서는 과라가 명령(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과라(자신)의 자식으로 훌륭하게 길러 내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나나니가 내는 소리에도 주목했는데, 나나니의 날갯짓 소리가 듣는 사람에 따라 ‘나나나나’, ‘유아유아(類我類我)’, ‘사아사아(似我似我)’ 등으로 들린다는 것인데, ‘나나나나’에서 ‘나나니 벌’이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며, ‘유아와 사아’의 음은 우리말 ‘날 닮아라. 날 닮아라’로 다시 옮겨졌다고 한다.<sup>7)</sup> 이 때문에 과라가 명령을 업어 기른다는 관용구가 나왔고, 명령은 타성(他姓)에서 맞아들인 양자(養子)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였다. 과라와 명령의 특별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문학작품에 수용한 것은 『詩經』에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고사는 시경(詩經) 소아(小雅)편 절남산지십(節南山之什) 소완(小宛)에 등장하고 있다.

中原有菽： 들녘에 콩이 있는데  
 庶民采之： 백성들 따고 있네  
 螟蛉有子： 뽕나무 벌레 새끼를 두었는데  
 蜾蠃負之： 나나니벌이 업어 간다네.  
 教誨爾子： 그대 자식을 가르쳐서  
 式穀似之：善으로써 그대 닮게 하게나.<sup>8)</sup>

나나니벌이 자신의 자식도 아닌 명령의 새끼들을 데려다가 자신과

7) 김성수, 「인재양성자 ‘나나니벌」, 『울산신문』, 2013. 7. 18, 13쪽.  
 8) 정약용, 2008,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주, 『역주 시경강의』 4, 도서출판 사암, 4~5쪽.

답은 자식으로 훌륭하게 키운 것처럼, 자신과 답지 않은 못난 자식도 선하고 훌륭하게 키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라는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훌륭하게 키워 자신의 대(학문)를 잇게 하는 인재양성자, 교육자로 비유되기도 했다. 육정수는 이러한 긍정적 의미의 고사를 새롭게 전유하여 나나니벌로 비유되는 일제의 교육권 침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혈의 영」에서는 경운이라는 인물 하나가 서사를 주도했다면, 이 소설에는 김창봉과 치운이라는 두 인물의 대화가 전경화되고 있다. 두 인물이 평양 대동강의 연광정에 올라, 「날 닮아라」 하는 나나니벌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

(치) 처음 듣나? 그것이 나나리가 뽕나무 버러지를 불어다 놓고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하는 소리일세.

백천 경계가 사람의 마음을 따라 느끼는 것이라. 나나리 소리는 고사하고 야삼경 두견성도 듯기껏 무심히 하면 관계가 없으려면 공익상에 밭 벗고 나선 김창봉 귀에야 헛되이 생각 하리요 먼 산을 몰끄러미 보다가 한숨을 한번 휘 쉬더니

(김) 치운이 저 미물에 명령(螟蛉)도 과라(蝶羸)에게 교육권을 빼앗겼네 그려. 길버러지 날짐승이되 상부동(相不同) 하 것만은 날 닮아라하는 소리에 남의 혼을 집어넣어 며칠이 못 되면 저 명령이 과라인체 하고 동족을 멸시하여 필경 물어까지와서 날 닮아라 할 모양이지

(치) 그러하기에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은 아니한다네. 그뿐인가 동식물이 일반이니 배나무에 감나무 접을 부치면 누가 다시 배나무라 하든가.

(김) 저러한 것도 그렇거든 지각이 있고 깨닫기 쉬이하는 사람이야 더구나 -

(치) 그러하기에 교육교육하기는 이것을 두고 말함이지 세상없어도 내 자식은 내가 가르쳐야지.

(김) 우승열패는 떳떳하리라 별과 개미 같은 것은 단결심과 진보력이 있고 저 명령 같은 것은 없는 까닭으로 그 학대

를 뺏네그러. 이 이십세기 경쟁시대에 사람이야 까딱하면 ...

(치) 인도 과란(필자: 폴란드)의 교육을 보게 심지어 말까지 영어 아어(필자: 러시아어)로 하는 모양이니 명령의 나나리 소리와 무슨

과라에게 잡혀 와 ‘날 닮아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명령을 보고 김참봉은 명령이 과라로부터 교육권을 빼앗겼다고 선언한다. 엄연히 길짐승(뽕나무에벌레)과 날짐승(나나니벌)은 다른 종족이지만, 교육을 통해 명령에게 과라의 혼이 주입되는 순간 이제 명령은 명령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과라인 체하며 동족인 명령을 멸시하거나 심지어 동족을 물어와 동족에게 과라의 혼을 집어넣는 또 다른 과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체성(혼)을 잃어버린 명령은 오히려 과라와 한 편이 되어 도리어 동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치운이라는 인물은 이를 식물에도 비유하는데, 배나무에 감나무 집을 부치면 더 이상 배나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두 인물은 교육에는 그 민족의 혼과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해나기 위해서는 교육만큼은 이민족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경쟁 시기에 자칫하면 우리 민족도 명령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명령에게는 없고 벌과 개미에게는 있는 단결심과 진보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치운이란 인물은 식민지가 된 인도와 폴란드에서는 자기 나라의 말이 아닌 지배국의 언어인 영어와 러시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명령이 내는 나나니 소리’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한다. 교육주권과 동시에 우리말로 진행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교육권 담보와 자국어로 행해지는 교육이 그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작가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기존의 칭송의 대상이 되던 나나니벌의 고사를 가져와서 보호국시기에 일제의 교육침탈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두 인물은 위기에 처한 교육주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세상없어도 내 자식은 내가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교육침탈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제는 을사늑약 이전인 러일전쟁 중에 이미 한국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했다. 러일전쟁 초기인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에 施政改善을 충고할 길을 터놓았다. 한국을 보호국체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이른바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에 이어 1905년 1월에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교육고문으로 초빙하여 학무국 學政參與官으로 일하도록 했다. 시데하라는 伊藤博文 부임 직후까지 1년 남짓 활동하면서 대한제국 말기와 이후 강점기 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는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에 따른 교육 분야의 보호교육론인 ‘식민 교육안’을 구상하는데,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의 유지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서양의 식민주의 교육을 검토하여 1905년 4월 「韓國教育改良案」을 완성했는데, 한국을 일제의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 적당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상호간의 감정적인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언어와 풍속을 이해 시키고, 일본의 문화를 수입하고 한국을 개발시키기 위해 일본어를 보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시데하라는 보통학교제를 도입하여 저학년부터 반드시 일본어를 배우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가 필요했으므로 1905년 6월부터 일어교과서 「일어독본」의 편찬을 서둘렀다. 1905년 9월 신학기부터는 일본인 교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일본어뿐만 아니라 타 교과를 가르치도록 했다. 기존의 소학교를 대신한 보통학교는 식민지 초등교육기관으로 구상된 것으로 교육의 핵심내용은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초학년부터 일본어를 배우도록 한 것이다.<sup>9)</sup>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성사되고,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사실상 식민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이후 8월 27일 이후 반포된 각종의 학교령에 의해 한국 정부의 교육체계에도 일대 개편이 일어났다. 정부의 교육체계를 식민지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토 통감은 시데하라를 경질하고 타와라 마고이치(俵孫一)를 학부 촉탁에 임명했다. 식민교육정책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우민화 교육으로 보통교육을 통해 일본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식민지인을 양성하는 동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sup>10)</sup>

1906년 7월부터 통감부는 본격적으로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일본어와 일본의 문명화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일본인 교사가 학교행정을 주도하도록 하여 통감부의 의도대로 식민교육을 실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07년 3월부터 『일어독본』이 본격적으로 배포되었다.

1907년 6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고종의 헤이그 밀사 특사 파견은 실패로 돌아가고 고종은 폐위되었으며 이토 통감은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감부는 한국 내정 간섭을 공식화하고 일본인들을 차관에 임명하는 이른바 차관정치를 실시한다.

학부 촉탁에서 차관에 오른 타와라는 보통교육에 더욱 진력하면서 1908년 1월 초등학교에 교감의 직위와 일본인 교감을 두어야 한다는 개정 초등학교령을 공포하여 각급 초등학교에 일본인을 교감으로 파견하도록 하였다. 결국 한국인 교장은 명목뿐인 학교의 우두머리로 전락하고 일본인 교감이 사실상 학교의 수뇌가 되었다.<sup>11)</sup>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육정수의 『과라의 자』는 보통교육 확대와 일

9) 이계형, 2008,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48쪽 ; 김성애, 2007,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의 추이」,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쪽.

10) 이계형, 2008, 앞 글, 60쪽.

11) 이계형, 2008, 앞 글, 75~117쪽.

본인 교사 배치를 통한 조선인의 일본인 동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던 1908년 4월에 발표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실력양성계열의 지식인들은 일제의 교육침탈과 일본어 교육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일본어를 가르친 학교가 이미 400개교를 넘을 만큼 일본어에 관심을 보였다. 계몽의 도구로 일본어 습득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측면도 있었다.

이처럼 교육구국운동을 주도한 학회나 계몽단체일지라도 반드시 일본어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이 시기 일본어 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실력 양성계열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매일신보 계열에서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었다.<sup>13)</sup>

乃今에 日語와 日文으로 蒙學의 最先教科를 作호얏스니 其 主意所在을 未可知也로다 韓國兒孩들에게 日語와 日文으로 最初先入之學이 되게 호고 自國精神은 全然消滅케호민지 然則韓國前途가 將次 波蘭과 同歸홀지니 念及於此호면 悲憤痛 矍이 曷有其極이리오(奇書, 『대한매일신보』, 1905. 10. 1, 3쪽)

韓國幼年으로 日文교課서를 服習코즈호미 其小兒의 腦髓를 鑿호고 彼所謂日本魂이라호는것을 注射코즈호미이라<중략> (教育禍胎, 『대한매일신보』, 1906. 6. 6, 2쪽)

12) 이계형, 2008, 위 글, 210쪽.

13) 한말과 강점기 시기의 자강운동(실력양성운동)을 연구한 박찬승은, 실력 양성론 계열을 크게 네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일본의 보호정치를 ‘선진문명국의 지도’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지도하에 실력 양성과 정당정치를 주장하던 대한협회계열, 둘째, 일제의 한국보호국화를 순수한 동양 삼국 연대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비판하면서, 실력양성-애국심 고취 등을 통한 국권회복을 주장하면서 문명개화와 유교개혁을 강조한 황성신문계열, 셋째, 아세아연대론-동양주의 등을 일체의 침략이데올로기로 보고 이를 철저히 비판하면서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을 주장하던 대한매일신보계열, 넷째, 일본의 침탈에 비판적 입장에 서면서도 한국은 아직 독립할 능력이 없으므로 먼저 그 역량을 기를 것을 주장하면서, 근대 시민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인격수양을 강조한 청년학우회 계열로 나누었다(박찬승, 1992, 앞 글, 367~368쪽).

육정수는 대한협회 계열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한매일신보계열의 인사로 볼 수 없지만, 교육주권을 강조한 부분에서만큼은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신문 사설은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식민지국의 언어와 교육정책이 결국 일본 혼을 注射하는 일이며, 결국 自國精神을 소멸케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육정수 역시 이 입장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육정수가 민족국가 단위에서 언어가 갖는 특수성에 눈뜨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는 문화의 총체로서 개별성을 획득한 집단 혹은 민족 국가에 의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문화’는 일반적으로 개별성에 있어 개인 혹은 집단, 민족, 국가로 하여금 대타관념으로서의 자기 확인을 내포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배척감으로 작용하여 문화의 보수성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언어가 갖는 민족주의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이에 육정수는 교육 만큼은 “세상없어도 내 자식은 내가 가르치겠다” 교육주권과 더불어 내 민족의 언어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서술로 희망을 제시하면서 서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공무사히 내리는 햇빛은 석양에 걸쳐 있고 천만재에 어김없이 돌아가는 세월은 영웅을 늦기이고 기둥 옆에 나나리는 ‘날 닮아라 날 닮아라 날날날’ 평양성중학교내에 하학중소리는 땡땡 모란봉 우호로 넘어 오는 바람은 단기 사천년 독립위엄을 떨치는 듯 쇄췌 김참봉이 나든 눈물을 씻고 벌떡 일어나면서 ‘어 그 바람 시원시원’

교육주권의 침탈 위기로 불안해하던 인물이 평양지역 중학교의 하학 종소리를 듣고서야 안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서술자는 평양성 중

14) 정창석, 1999, 「친일문학의 언어문제」, 『일본문학연구』 1, 동아시아일본학회, 1~3쪽.

학교의 하학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침 모란봉 위로 넘어오는 바람이 단기 4천년의 독립 위엄을 떨치는듯하다고 했다. 김 참봉은 그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끼며 울음을 그치고 있다.

일제의 교육정책은 그 의도대로 쉽게 정착을 내릴 수 없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서북 지역 평양성의 모 중학교는 일제의 교육령에서 벗어나 있던 사립학교로 볼 수 있다. 1907년 고종 강제 폐위, 군대 해산 등 망국 위기에 처할수록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 속에 사립학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어 갔다. 1908년 관공립학교 수가 50여 개였던 것에 비해, 사립학교 수가 4~5천을 헤아릴 정도로 급증되었다.

서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립학교 절반 정도가 그 설립취지로 국권회복을 내세우고 있을 만큼 사립학교는 항일민족교육운동을 자처하고 있었다. 일제의 일본어 강요와 교육주권 침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립학교는 일제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그랬다.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서북지역은 기독교가 가장 승했던 지역으로 1910년 병합 직전 전국 822개 종교학교 중에 557개교인 68%가 이 지역에 몰려 있었다.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 상황에서 외국 선교사의 관리 하에 있던 종교학교는 치외법권을 누리며 일제의 인가와 통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또한, 본래부터 서북지역은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을 높게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다.<sup>15)</sup>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은 사립학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었음에도<sup>16)</sup> 1910년까지 보통학교령의 지배를 받는 인가된 사립보통학교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가를 받은 사립중학교<sup>17)</sup> 역시 함남지역의 1개교밖에

---

15) 이계형, 2008, 앞 글, 144쪽.

16) 1910년 5월말 현재, 서울의 사립학교 수는 94개교, 경기 200개교, 남한의 여타 지역들은 43개교(강원)에서 150개교(경북)인데 반해, 황해도는 286개교, 평남은 443개교, 평북은 401개교로 많았다(高橋濱吉, 1927, 『朝鮮教育史考』, 309~310쪽 ; 이계형, 2008, 앞 글, 144쪽에서 재인용).

17) 일제 통감부는 시데하라의 개량안에 따라 1906년 8월 기존 중학교의 수업 연한 7년을 심상 4년 고등 3년으로 나누고 고등학교로 칭하도록 했다(이계형, 2008, 앞 글, 92쪽).

되지 않았다.

사립학교의 급증은 통감부의 식민통치에 위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이 소설이 발표되고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서둘러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모든 학교는 학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폐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과용 도서도 학부가 편찬한 것이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중에서 선택해서 쓰도록 했다.<sup>18)</sup> 식민지화를 하기도 전에 민족교육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의도였다. 따라서 「과라의 자」는 반식민지로 전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위기에 직면한 교육권에 대한 육정수의 예민한 촉수가 빚어낸 작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IV. 「水輪의 聲」 - 自助論의 수용

『장학보』에 마지막으로 실린 작품은 「水輪의 聲」인데, ‘물레방아 소리’로 풀어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함흥의 명승지를 방문한 김한기와 이일청 두 사람이 함흥의 명물 만세교에 인접한 신흥동에서 물레방아를 보고, 시간의 소중함과 근면성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앞의 소설과 달리 아예 서술 지문 없이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파격을 보여주고 있다.

(김) 만물은 때를 따라 바뀌이고 사람은 물건을 따라 늦기  
이는 게로구

(리) 그렇고 말고 구추에 지던 입이 어연 듯 삼춘에 피는  
꽃 아닌가.

<중략>

(김) 이제 만세교로 넘어가세.

---

18) 이계형, 2008, 윗 글, 165쪽.

(리) 신흥동 구경 마저 하고

함흥 주남사 한줄기 가을한천(加乙罕川, 필자: 갈한천)물은 만세교 밑으로 용용이 흘러가고 넘어가는 햇빛은 낙민루 상에 걸칠 듯 말 듯 두세 점 도화는 춘풍에 떨어져 버들 그림자에게 미끼를 지여 물결에 치는 대로 넘노는데 일척 백어는 뜨락 잠기락 흘러가는 한줄기 물을 이끌어 주야불식 일하는 것은 신흥동 앞 물방아요 방화수류 가다가서 무슨 생각이 그다지 느꼈던지 오도가도 아니하는 사람은 만세교 건너가자던 함흥부내 김한기 리일청 두 사람이라.

(김)과 (리)의 약호화 된 대화주체를 내세우고 이들의 대화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후 두 인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되고, 다시 서술자는 대화의 두 주체가 함경도 함흥부에 살고 있는 김운기와 이일청 두 청년임을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국가적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해결 방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앞의 소설과 달리 두 사람의 갈등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서술자와의 거리(distance)가 가까운 이일청이 불안해하는 김운기를 달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가는 세월은 우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세사는 나날이 다르니 ……

(리) 그 말 말게. 하늘은 스스로 일하는 자를 도우시나니 설마 날이 있겠지.

(김) 약육강식하고 우승열패하는 이십세기에 어떠한 영웅이 능히 돌아가는 풍조를 막을꼬.

(리) 영웅은 허다한 무명 영웅을 힘입어 사업을 이루나니 보범 전장에 영웅이 보로사(프로이센: 필자) 소학교에 무수한 영웅이라는 말을 못 들었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천만 명의 무수한 영웅이 저 물방아와 같이 일하기만 바랄 뿐이지.

(김) 시대는 東流水와 같이 흐르는데 지금 현상은 기막힐

뿐 일세.

(리) 불능이라는 글자는 법국(프랑스: 필자) 자전에 찾지 말라는 말을 보게. 좋은 기회가 동류수 같이 흘러가며 우리 취하기를 기다리나니 교육으로 그 취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은 우리 직분이 아닌가.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을 소설 양식의 주요한 특징으로 이해할 때 두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에 와서 육정수의 단편서사가 보다 근대적 소설 양식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김한기는 물레방아를 움직이는 물을 지켜보면서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곡식을 갈(磨)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우승열패의 시기에 반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나간 시간을 애석해 하며 지금의 기막힌 현실을 되돌리기에 때는 늦었다고 생각한다. 우승열패의 논리에 찢어들었던 상당수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한기 역시 불안을 넘어 이미 체념상태에 빠져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일청은 자조론을 근거를 들면서 이천만 국민 각자가 저 물레방아와 같이 일한다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하면서 김한기에게 절망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위해 자신들의 직분인 교육에 힘쓰자고 한다. 김한기와 이일청은 다 같이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실력양성론을 신봉하고 있지만, 이일청은 김한기와 달리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일청이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데 그 계기로 삼고 있는 ‘자조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조론은 육정수 문학을 지배하는 주요한 정신이자 육정수 개인에게도 강점기 상황에서 끝내 민족교육과 민족자본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신념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육정수는 사회진화론뿐만 아니라 자조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 1812~1910)의 『자조론(Self-Help)』은 영국의 부르주아지의 지침서라고 할 만큼 자기 역경을 딛고 성공의 신화를 일구었던 실업가를 비롯한 숱한 인물들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자조론’은 우리의 근대계몽기에 노동을 천

시하는 봉건적 의식을 타파하고 민족 산업의 진흥을 통한 자립경제의 실현, 이를 통한 독립 쟁취라는 국부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 ‘자조론’은 특히 기독교 계통 육정수가 수학했던 배재학당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sup>19)</sup> 배재학당에서는 대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자조정책(自助政策)을 채택했다. 또한 학교 내에 ‘자조부’를 설치하고 학비 마련이 어려운 고학생들을 위해 교내 인쇄소 등을 설치하여 등 근로를 제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육정수는 배재학당에서부터 자조론을 접했다고 할 수 있다.

육정수가 평생을 몸담았던 YMCA 역시 국제적 기독교운동단체로 애초에 피복 공장 노동자들이 조직한 자조운동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육정수에게 이 ‘자조론’은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조론의 요체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굳이 이 작품에서만뿐만 아니라 육정수의 작품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다.<sup>20)</sup>

『송퇴금』에서는 실의에 빠져있는 주인공에게 몽중노인은 아예, “『자조론』 1편을 다시 읽으라.”(106쪽)고 권하고 있다. 『자조론』의 1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다. 자조의 정신은 각 개인이 자기를 계발하기 위한 진정한 뿌리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한 나라의 국력이 된다. 타인의 도움은 사람이나 약하게 하지만 스스로를 돕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힘이 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립심이 없어지고 지도와 감독에 길들여져 무력한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sup>21)</sup>

19) 최원식, 1985, 「제국주의와 토착자본」, 『전환기의 동아시아문학』, 창작과비평사, 164~165쪽.

20) (근암) 하늘은 자조하는 자를 도우신다 하니 설마 날이 있겠지(『송퇴금』, 27쪽),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도우시나니(『송퇴금』, 105쪽) 등.

반식민지의 절망적 상황에서 실력양성론을 신봉하던 육정수에게 국민 개개인의 자조(자발적 노력)를 강조한 ‘자조론’은 큰 공감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자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조의 정신은 각 개인이 자기를 계발하기 위한 뿌리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국력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작품 속 김한기처럼 ‘영웅 대망론’을 기대하지도 않도록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난세의 상황에서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김운기에게 이일청은 보불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러시아(지금의 독일)의 힘은 보통교육으로 각성된 국민들로 나왔다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물방아와 같이 일하는 이천만 명의 무수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한 개인보다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송뢰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우초가 정치 실업 사회 가정이 무비부패한데 어떠한 영웅이 나타나 이러한 풍조를 막겠느냐고 한탄하자 서술자를 대변하고 있는 근암은 “사람마다 각각 제 일만 잘 하면 그 후에 소소한 분자의 자립이 일국의 자립이 된다”(27쪽)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용기와 불굴의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주문은 이 작품의 주인공 이일청이나 『송뢰금』의 주인공 근암처럼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국 자전에는 불능은 없다”는 말은 『수륜의 성』에서 뿐만 아니라 (『송뢰금』, 27쪽)에도 반복되고 있는 데 이 역시 ‘자조론’의 영향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사회진화론, 즉 우승열패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상당수 실력양성론자들은 일제의 보호국화를 선진문명국의 지도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실력 양성을 갖추지 못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육정수는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에만 기댄던

---

21) 새뮤얼 스마일즈, 공병호 옮김, 2006, 『새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 비즈니스북스, 28쪽.

것이 아니라 이 ‘자조론’의 정신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육정수가 강점기 상황에서도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또 민족 실업가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작중 인물의 언술에서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스스로 활동치 못하고 구구이 한 생명을 편안한 곳에 보존하려 하면 이는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도우시느니, 自暴自棄 하는 것은 나의 당당한 자유를 잃는 것이며 결코 자신이 뜻하던 바가 아니라고”(105쪽) 주장하는 『송뢰금』의 청년 실업가 근암이나,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뒤흘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할 줄이 있으랴(「참맛」, 『공도』, 66쪽)라는 속담구절을 들어가며 민족자본의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관서, 모두 작가 육정수의 자조론적 삶의 가치를 작품 속에서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앞의 작품과 같이 초반부의 등장인물이 보여주던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긍정적인 결말로 마무리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뜻이 우연히 느끼어 유유한 심사에 나오는 말이  
역수(易水)물가에 격축가(擊筑歌)도 들은 듯하고 옹문(雍門)  
좌중에 탄금성도 들은 듯 하여 장애가 교집(交集)한데 백두산  
나린 맥은 용흥지기 억만년 독립기상을 그린 듯 좌우 산봉이  
외외하고 시냇가에 한줄기 양유는 저녁연기를 머금은 듯 쉬  
지 않고 찡는 물방아는 가는 세월을 앓기여 나태한 누습을  
깨우는 듯 광-담겼던 물 쏟아지는 소리는 백옥 같은 흰 물결  
로 비루한 심장을 씻을 듯시 철-씩 석쇄.

시간에 촉급해하며 불안해하던 김운기, 그러한 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던 이일청은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억만년의 독립기상을 그린 듯한 함흥지역의 높고 우뚝한 산봉우리와 시간을 아껴 가며 쉽없이 물방아를 찡는 흰 물결을 바라보며 답답한 자신들의 마음을 떨쳐

내고 있다. 시간의 소중함과 나태한 누습의 타파를 일깨우면서 제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물레방아는 ‘자조’를 강조하고 있는 작가에게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 『송퇴금』과 상호텍스트성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인물 설정에서 그러한데, 「수륜의 성」에서 김한기는, 『송퇴금』에서 시대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가지고 영웅 대망론을 기대하다가 끝내 기생 ‘농매’에 빠져들어 타락해가는 ‘우초’라는 인물로, 자조론을 신봉하며 끝까지 김한기를 격려하던 이일청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위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실천해나가는 ‘근암’이라는 인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계몽기 작가나 작품은 알려진 작가나 작품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육정수의 경우도 1984년 최원식 교수 이래 여러 논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송퇴금』 한 편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육정수의 문학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계몽기 문학사의 폭을 두텁게 하기 위해 육정수가 최초로 지면에 발표한 단편 세 편에 주목하였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계몽기의 단형서사와 달리 작가의 논평적 해설이 억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지면을 활용하여 당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주제 설정과 다양한 기법적 실험들이 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자의 일방적 담론보다는 구체적인 공간묘사, 대화를 전경화 한 주제 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의 작품은 보호국화 상황에 놓인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듯 불안감, 위기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2)</sup> 그만큼

22) 예컨대, 이러한 구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천년 고국과 삼천리 강토로 설마 있지 않을까”(「혈의 영」).

육정수는 시대인식에 대한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작품 속에 투영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시대적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애쓰는 “공익상에 발 벗고 나선”(『과라의 자』) 인물들로 충만하다. 욕심의 미망에 사로잡힌 청년(『晩悟』, 2월호), 불학무식의 남편(『婦人勸學』, 4월호), 주색잡기에 빠진 학자(『夢의 刑』, 4월호), 게으른 학동(『夢覺』, 5월호)을 내세우고 있는 『장학보』 소재의 다른 소설과 크게 다르다. 육정수 소설이 지향하고 있는 사실주의적 성격과 계몽주의의 단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육정수는 소설 결말에 와서, 소설 전반부에 드리우고 있던 불안과 절망을 희망의 플롯으로 반전시키고 있다. 교육과 실업을 통한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염원, 교육주권의 보존, 국민 개개인의 자조가 뒷받침 된다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실력양성론자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조론 또한 신념화하고 있었다. 그의 소설 속 인물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소설이 희망을 플롯을 제시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자조론적 신념이 뒷받침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의 소설에는 자주 독립의 염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표들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천년 고국, 자유, 독립, 태국 국기, 삼천리강토, 팔만 이천방리, 대한 혼”(혈의 영), “단기 사천년의 독립 위엄”(『과라의 자』), “백두산 나린 맥은 용흥지기 억만년 독립기상을 그린 듯”(『수륜의 성』) 등과 같은 표현은 모두 국권 회복에 대한 그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소설이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는 우리나라를 환유하는 구체적 공간이나 지명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거나 작품 속에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금강산, 승례문, 밧남산(남산)”(『혈의 영』), “대동강, 연광정, Moran봉”(『과라의 자』), “함흥 주남사, 갈천천, 만세교, 낙민루”

(「수륜의 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당시의 우리 민족 특히 서울·평양·함흥의 지역민이 가장 즐겨 찾던 명승지이기도 했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과 함께 서사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가의 국토애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면학이라는 주제에만 급급해 막연한 추상적 시공간을 설정하고 있는 『장학보』 소재의 여타 작품과 육정수의 소설은 이 점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의 소설에는 우리 국토의 사랑에 버금가는 우리말 애착도 드러나고 있다. “뛰뛰뛰 기차는 정거장에 다다라”, “김빠지는 소리는 쇠썰썰”, “복숭아 나뭇가지에 흰 눈발은 떨어져 춘색이 비칠 듯이 푹푹푹”, “매화는 봄빛을 재촉노라 송이송이 피었는데”, “두 나라 툭툭 치며 우는 닭소리는 이날 밤 상오 두시 종소리와 섞기여 꼬끼오 땡땡 땡땡 꼬끼오 땡땡꼭꼭”(「혈의 영」), “날 닭아라 날 닭아라 날날날”, “하학중소리는 땡땡 모란봉 위로 넘어가는 바람은 단기 사천 사천년 독립 위엄을 떨치는 듯 썰썰”, “별떡 일어나면서 어 그 바람 시원시원”(「과라의 자」), “일척 백어는 트락 잠기락”, “비루한 심장을 씻을 듯이 철-씩 석 썰”(「수륜의 성」) 등 제한된 지면이지만 아주 다양한 우리말 의성어, 의태어 등이 최대한 동원되고 있다.

특히 첩어가 주는 리듬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체에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주제를 암시하거나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가 소설 문장을 쓰는 데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문장에서뿐만 아니라 독자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육정수는 서술지문과 각 인물주체들의 대화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독서의 가독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등장인물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내고 있다. 육정수는 대표작 『송뢰금』에 이어 1915년의 「참맛」, 심지어 중국 소설 『옥리혼』을 번역하면서도 원 텍스트에는 없던 발화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띄어쓰기

가 보편화되지 않고, 서술지문과 대화의 구분조차 불분명했던 계몽기에 그는 이러한 표기방식을 통해 독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문장부호가 시도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정수는 『송뢰금』에서 신소설로는 처음으로 물음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3)</sup> 문장부호에 대한 예각적 인식은 세 편의 콩트에서도 충분히 엿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 지문이나 대화에서 강조할 부분에 낫표(「 」)를 즐겨 사용하거나 말줄임표(가는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사는 나날이 다르니 ……………, 「수륜의 성」), 모점(지각이 있고 깨닫기 쉬이 하는 사람이야 더구나 - , 「과라의 자」) 등을 쓰고 있다.

따라서 육정수가 남긴 세 편의 콩트는 정신사적 측면이나 그 기법적 측면에서 빈약한 우리 계몽기 문학사의 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세 편의 콩트 실험은 『송뢰금』과 같은 계몽기의 남상이 되는 작품을 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륜의 성」에 등장하는 김한기와 이일청은 『송뢰금』에서 우초와 근암이라는 인물로 거듭나 일제 강점기를 대하는, 대립적이고도 개성적인 인물 유형을 창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육정수의 대표작 『송뢰금』은 결코 갑자기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던 것이다.

[논문접수: 2014. 11. 5, 심사시작:2014. 11. 15, 심사완료:2014. 12. 10]

주제어 : 육정수, 계몽기, 콩트, 단편서사

23) 원해연, 2010, 「근대전환기 문장 부호의 사용 양상과 특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40쪽.

【참고문헌】

- 육정수, 1919. 2. 15.~5. 3, 「옥리혼」, 『매일신보』.
- 육정수, 1915. 3, 「참맛」, 『공도』.
- 육정수, 1908. 2, 「혈의 영」, 『장학보』.
- 육정수, 1908, 『송퇴금』 상, 박문서관.
- 강언복, 1997, 「미주유이민문학연구1」, 『목원어문학』 15집, 목원대학교.
- 김성애, 2007, 「일제강점기 식민지교육정책의 추이」,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철, 1994, 「한말 민족현실과 신소설」, 『인문논총』 제5집,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창록, 2006,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 『한국문학연구』 3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김형규, 2011, 「일제 식민화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 민희수, 2001, 『육용정의 현실인식과 동도서기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새뮤얼 스마일즈, 공병호 옮김, 2006, 『새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 비즈니스북스.
- 송민호, 1975,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 양진오, 2005, 「육정수의 『송퇴금』 연구」, 『어문논총』 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 원해연, 「근대전환기 문장 부호의 사용 양상과 특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형, 2008,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경덕, 2011, 「초우당주인 연구」, 『우리어문연구』 41집, 우리어문학회.
- 조남현, 2012,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최원식, 1984, 「신소설과 노동이민」, 『인하대학교 인문학과연구소 논문  
집』 제10집.

최원식, 1994,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비평사.